

갑종장교 호국탑 제막식 메시지

오늘 갑종장교의 열과 공적을 기리는 호국탑을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삼가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,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
갑종장교들은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6·25전쟁 직후부터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수행하며 위국헌신의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산화한 988명의 숭고한 희생은 지금도 우리 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

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들이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조만간 '국가보훈기본법'을 제정하고,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그동안 호국탑 제막을 위해 애써 온 갑종장교중앙회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, 국군장병 여러분의 무운을 기원합니다.